

# 드라마·예능 손 안으로

1020세대 장소·시간 제약없이 즐겨  
방송국·제작사 10분 내외 웹드라마 제작  
신선한 소재·이슈 활용한 콘텐츠 다양



매번 정시에 맞춰, 1시간 이상 TV 앞에 앉아 있을 1020(10·20대) 세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도 모바일로 드라마든 예능이든 콘텐츠 대부분을 소비한다.

최근 디지털마케팅기업 메조미디어 설문에서도 10대 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은 주 12.2시간, 20대는 11.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국과 제작사들도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모바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10분 내외의 강렬한 콘텐츠를 줄줄이 내놓는다.

◇ 1020 감성과 사회적 이슈를 그대로... 웹드라마 키워드는 '공감'

웹 콘텐츠 중에서도 드라마 약진이 눈에 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신인 배우 등용문 정도로 여긴 웹드라마는 심지어 기성 배우도 아닌 연습생들을 내세워 공전의 히트를 한 '에이틴' 같은 작품들이 나오면서 1020세대 사이에선 주류가 됐다.

1020 세대에 인기 있는 웹드라마들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공통점이 있다.

스튜디오 온스타일에서 선보인 '좀 예민해도 괜찮아'는 스무살 새내기들이 캠퍼스 젠더 이슈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아 공개 한 달 만에 누적조회 수 2000만뷰를 돌파했다. 술자리 문화, 단체 채팅방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20대 여성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담은 덕

분이다.

또 다른 히트작 '연애 강요하는 사회' 역시 연애에 스펙이 돼버린 사회에서 '우리는 꼭 연애를 해야 행복할까'라는 화두를 던져 호응을 얻었다.

앞서 언급한 플레이리스트의 '에이틴'은 10대 감성을 그대로 반영해 내용뿐만 아니라 극에 등장하는 패션까지 10대 사이에서 회자했다.

이외에도 새내기 대학생들의 풋풋한 연애를 재밌게 그린 '한입만', 스튜디오 료루랄라의 '두타이의 어렵지 않은 학교생활', 당고의 '연애는 무슨 연애' 역시 1020 세대의 일상을 주제로 공감대를 얻는다.

◇ TV로도 모바일로도... 새로운 시청경험 주는 예능들  
웹예능에서 TV 예능으로, TV프로그램에서 웹예능으로. TV와 디지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청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들도 주목받는다.

특히 웹예능들은 TV보다 자유로운 틀 안에서 신선한 소재와 인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심심 살린다.

송은이와 김숙의 콘텐츠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국에서 배달된 고깃집에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올리브 '밥블레스유'는 송은이의 크리에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팟캐스트 '비밀보장', 유튜브 채널 '비보 티비' 등을 만든 비보티비에서 기획한 예능으로 출발했다.

tvN

의 디지털 스튜디오 '홍배이커리'도 신선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tvN 예능 '인생술집'과 '놀라운 토요일'의 코너를 변주한 스페셜 콘텐츠 '캠생술집', '시파라마켓'을 선보이며 눈길을 끈다.

JTBC의 디지털콘텐츠 전문 채널 스튜디오 료루랄라에서 제작한 '와섭맨'은 JTBC '사서고생'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으로 1세대 아이돌 그룹 지도이 출신 박준형을 내세워 구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붐을 일으킨다.

이렇듯 젊은 층의 영상 시청 형태 변화에 발맞춰 방송사들도 채널 산하에 디지털 전문 스튜디오 조직을 만드는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합뉴스

## 韓 중화요리 중국에서 통했다

tvN '현지에서 먹힐까?' 3.8% 출발

이연복 셰프의 손맛이 담긴 짜장면이 중국에서도 통했다. 9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처음 방송한 tvN 예능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 편 시청률은 3.8%(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중화요리의 대가 이연복 셰프는 처음부터 "중국에서도 짜장면이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떠났다.

이연복 셰프의 예상대로 중국 현지인들의 줄이 길게 늘어졌고, 준비한 재료가 모두 동이 나는 등 푸드트럭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마치 이연복 셰프가 주인공으로 있는 '목란'을 축소해 중국에 옮겨온 것 같았다.

중화요리이지만 중국에는 없는 짜장면이 중화요리의 본고장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뿌듯함과 재미를 동시에 줬다.

동시간대 방송한 KBS 2TV '불후의 명곡'은 5.9%-8.4%, SBS TV '백년손님'은 5.6%-8.0%, MBC TV '뜻밖의 Q'는 2.7%-2.9%의 시청률을 보였다.

한편, 전날 밤 10시 55분 처음 방송한 KBS 2TV '대화의 화열'은 2.1%로 출발했다.

가수 유희열이 진행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방송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원 게스트 토크쇼'로 눈길을 끌었으며, 첫 회 게스트로 개그우먼 김숙이 나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희열은 이번에도 그동안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등에서 보여온 차분하고도 진솔한 진행 실력을 보였다.

김숙 역시 평소 예능에서 보여줬던 유머 감각에 더해 과거 공백기에 겪었던 게임 중독, 과거 외모 비하 등 개그 방식에 대한 반성 등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청자의 공감을 자아냈다.

동시간대 방송한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은 6.2%-8.5%,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5.7%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중장년층 오후 3시 라디오와 놀아요"

광주MBC '놀라운 3시' 신설

광주MBC가 라디오 가을 개편을 맞아 10일부터 새 프로그램 '놀라운 3시'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5분부터 55분 간 방송된다.

중장년층인 대상인 오락 프로그램 '놀라운 3시'는 스튜디오 안팎에서 지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청취자 참여 코너 '도전! 미션 잡 GO-놀세'와 고민을 나누는 '화요일에 확 풀어요!', '골(GOAL) 때리는 꼴성대 대결' 등으로 구성됐다. 재미 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김태일씨와 리포터 정혜정씨가 진행을 맡았다. (표준 FM 93.9MHz) /백희준 기자 bhj@



진행자 정혜정(왼쪽)·김태일씨.

###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5 UHD 스페이스 강원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차종우돌 만국 유망기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라도 매력청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모 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종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돌탈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국악한마당(재)	35 비바 K리그(재)	10 스포츠 다이러리 25 MBC 가요베스트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목은지짚고 청양고추 부추전〉	17:15 마샤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인생은 축제도, 맥시코 1부 태양보다 강렬한 치와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세상 끝 고원을 기다리 1부 고원이 들려주기를〉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비밀의 땅 피마리 1부〉
10:30 한국기행(재)	16:15 똑딱맨	22:45 우리 가족 저리 줘하기-부모성적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0일(음 8월 1일 乙巳)

<p>36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48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60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2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실감이 크겠다. 84년생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8, 80</p>	<p>42년생 모순 속에 갇힌 습관이 문제였다. 54년생 소중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66년생 나아진 만큼 더 많은 번거로움도 따른다. 78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90년생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8, 53</p>
<p>37년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이다. 49년생 영문도 모른 채 휘둘릴 수도 있는 성국이다. 61년생 당면 과제부터 점검하라. 73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하라. 85년생 파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57, 86</p>	<p>43년생 신변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55년생 목 마른이가 샘물을 찾는 것처럼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67년생 매우 혼란스러운 양태이다. 79년생 운기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91년생 귀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1, 70</p>
<p>38년생 순조로워서 경사가 곱질 수도 있다. 50년생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니 신중하라. 62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86년생 성취의 보람을 만끽하라. 행운의 숫자 : 13, 87</p>	<p>44년생 앞장 결실을 임태 하는 마당에 임하라. 56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된다. 68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하였던 바이다. 80년생 준비하다가 하루해 를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97, 59</p>
<p>39년생 역량을 발휘한다면 양호하다. 51년생 고목이 봄을 만나서 싹을 트일 수 있다. 63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75년생 사소함을 자치하고 고단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87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행운의 숫자 : 44, 96</p>	<p>45년생 현저한 변화에 감쪽 놀랄 수밖에 없다. 57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 되리라. 69년생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마주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81년생 마음을 빼앗긴다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93년생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55, 68</p>
<p>40년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가 있다. 52년생 형세를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된다. 64년생 한 가지를 잘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리라. 76년생 자임 있게 관리해야 할 판국이니라. 88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안정 궤도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3, 81</p>	<p>34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46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58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70년생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82년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 길들이 좌우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93</p>
<p>41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이다. 53년생 어떠한 정세가 되더라도 임정이 일관 되어야 한다. 65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량이 이른다. 77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다녀야 할 바쁜 날이다. 89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43, 04</p>	<p>35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여겨져 된다. 47년생 자신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에 비례해서 성과를 거둔다. 59년생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71년생 경정을 많이 하라. 83년생 대접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2, 2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